



■ 테레사 로사노 롱 라틴아메리카연구소(LLILAS)

서 라 연

테레사 로사노 롱 라틴아메리카연구소(Teresa Lozano Long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이하 LLILAS로 약칭함)는 미국 오스틴 소재 텍사스주립대학교에 소속된 라틴아메리카연구소이다. 1940년에 설립된 이 연구소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전반에 걸친 학제적 연구를 추구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 각국에 7개의 연구센터를 두고 있다.

이 연구소에 참여하는 전임교수들만 백여 명이 넘고, 이곳의 학술적 자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안식년 등을 이용하여 체류하는 국내외 방문교수들도 적지 않다. 방문교수들 중에는 학계만이 아니라 언론인, 법조인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인도 있다. 이러한 연구 인력을 바탕으로 LLILAS는 텍사스주립대학교의 약 30개 학과와 연계를 맺어 라틴아메리카를 연구하는 학생을 위해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법학 박사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학 박사를 동시에 취득할 수도 있다.

LLILAS의 또다른 자랑거리는 바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축적 및 개방이다. 벤슨 라틴아메리카 컬렉션(Benson Latin American Collection)은 라틴아메리카 및 라티노 관련 자료만 집중적으로 모아 놓은 도서관이다. 온라인으로도 접근 가능한 사료 및 논문들도 있어서 라틴아메리카 연구자들에게 유용하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털사이트 LANIC(<http://lanic.utexas.edu>)도 이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LANIC은 라틴아메리카 관련 12,000개의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는 라틴아메리카 관련 세계 최대의 웹사이트이다.



학술활동의 일환으로서 LLIIAS에서 주최하는 학술대회는 각 센터 및 학내의 여타 분과 학문과 연계 속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령, 2007년 후반기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거나(예: Conference on Indigenous Languages of Latin America) 2008년 봄학기 학술대회처럼 특화된 주제(예: Transitions in the Cuban Revolution)를 다루기도 한다.

이밖에도 각각의 연구센터마다 집담회, 영화상영 등 학술행사나 대중적인 행사를 자주 개최하여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출판활동 또한 왕성하다. LLILAS는 라틴아메리카의 원주민 언어에 관련된 저서 혹은 논문, 여타 라틴아메리카 관련 논문, 그리고 텍사스주립대학교 출판부에서 발간하는 시리즈 등 다양한 저서를 기획함으로써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에 이어 출판활동에서도 라틴아메리카 연구의 선도적인 소임을 다하고 있다.□